

있더라는 게지. 그런데 아무리 부잣집이고 또 궁정에서는 다들 돈 말고는 아무데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, 그렇게 못생긴 데다가 인정머리까지 없는 처녀와 집안끼리 연을 맺고 싶어 했을 사람이 누구 하나 있을 리 없었다네.

이모님은 추신에 가서 덧붙이길, 심사숙고한 끝에 라 부르도네 씨에게 그녀의 신분을 단단히 보증해두었노라고 했어. 그분이 실제 라 투르 부인의 신분을 보증해준 것은 맞지만, 그건 그저 공공연히 적의를 가진 사람보다는 보호자를 더 두려워해야 할 사람으로 만드는, 오늘날에는 아주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례에 따른 것이었네. 말하자면 총독에게 질녀에 대한 자신의 몰인정을 정당화하려고 부인을 동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헐뜯는 말을 늘어놓았던 게지.

라 투르 부인은, 어느 무심한 남자일지언정 관심과 경의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그런 사람인데도, 그녀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진 라 부르도네 씨로부터 극심한 냉대를 받았다는. 총독은 부인이 자기와 자기 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려주고자 했던 말에도, “봐야죠

...

생각해봅시다

...

시간을 두고요

...